

핫뉴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에서 추미애(왼쪽) 당선인과 우원식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맞대결

조정식·정성호 경선 불출마 박찬대 물밑 조율설도 '솔솔'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6) 당선인과 우원식(67) 의원의 양자 구도로 정리됐다.

추 당선인과 조정식(61)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추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 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면 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하며 당내 최다선인 된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역시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한 5선 친명 정성호(63)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CJ·샘표 올리브유 30% 넘게 인상

국제 올리브유 가격 급등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식품사들이 올리브유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샘표는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 이상 인상했다.

사조해표도 오는 16일부터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평균 30%대로 인상한다고 각 유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F&B 역시 이달 중 올리브유 가격을 약 30% 올린다.

이번 인상은 국제 올리브유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새 40% 넘게 올랐다.

국제 올리브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선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가뭄이 꼽힌다.

4파전 구도였던 국회의장 경쟁은 이로써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맞대결로 전환됐다. 우 의원은 의장 경선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정 의원의 사퇴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明心)'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강성 당원들이 추 당선인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대표직 연임을 수고하며 당원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자연스레 추 당선인 쪽에 기울어 가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전환"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인데 민주당 편을 안 들어서 불만이 사실 많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 때 상황실장을 맡았던 친명 4선 김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다수의 판단을 믿고 가야 한다. 당원 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 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 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며 추 당선인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국회의장 후보군의 '교통 정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조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조율설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세계 올리브유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은 지난 2년간 가뭄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스페인산 올리브유는 가격이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그리스와 이탈리아·포르투갈 같은 주요 올리브 생산국에서도 날씨 탓에 작황이 나빠졌다.

가격이 급등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도 메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100% 올리브유'를 써 왔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지난해 10월부터 올리브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해바라기유를 절반 섞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식품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제품 가격 인상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왼쪽 네번째) 인천시장이 10일 부평구 부영로에서 열린 '부평동~장고개 도로개설 공사(3차 2공구) 착공식'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참석 내빈들과 착공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 부평의 새로운 변화 '첫삽'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청라~부평~부천 연결도로

인천시가 10일 부평구 산곡남중학교와 주안장로교회를 연결하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3차 구간 2공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구간은 왕복 6차선 도로(길이 660m, 폭 30m)로, 공사비 67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부평동과 서구 가좌동 장고개를 잇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길이 3.2km로 3차에 걸쳐 공사한다. 1차 구간(부평시장역~주안장로교회, 540m)은 지난 1998년에 개통했고

2차 구간(부평 제3보급단~장고개로, 1.380m)은 제3보급단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예정)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서구 청라~부평~부천시를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완성된다.

캠프마켓을 지나는 3차 구간(주안장로교회~제3보급단, 1280m)은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정화의 문제로 1공구와 2공구로 나눠 공사한다. 1공구(산곡남중학교~제3보급단)는 지난 2020년 개통됐지만 2공구(주안장로교회~산곡남중학교)는 지난해 12월 캠프마켓 D구역 반환과 A 구역 토양정화가 완료되면서 이번엔 착공하게 됐다.

공사 지역 인근에는 5개 학교(인천산곡초·산곡여자중·산곡남중·부원초·부평여자고)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지만 캠프마켓으로 단절돼 있어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주변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됐다.

이번 3차 구간 2공구 사업이 재개되면서 산곡동에서 부평시장역까지 5분 거리로 단축돼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량 분산에 따른 주변 도로 정체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공사는 캠프마켓으로 단절돼 있던 부평구와 서구를 잇고 대규모 공원 조성인 인천 제2의료원, 인천식물원과 같은 부평의 새로

운 변화를 불러 넣는 '부평 르네상스'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인천 시민과 부평구민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들께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평산업단지 대개조, 제3보급단 이전개발 등 부평지역에 대표적인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캠프마켓 부지에 공원이 완료되고 112만㎡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오는 2030년 부평의 도시공간이 새롭게 재편되고 삶의 지도도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근 기자

김동연 "올해도 경기청년 온다"

(경기도지사)

아나 워싱턴대학 총장 만나 사다리 프로그램 협조 당부



김동연(오른쪽) 경기도지사가 미국 워싱턴주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 총장 마링콜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é) 총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é) 워싱턴대 총장을 만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워싱턴대학교 한인학생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기후, 소통, 소셜미디어의 문제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먼저 현지시각 10일 오전 시애틀시에 위치한 워싱턴대 총장실에서 아나 마리 카우스(Ana Mari Caucé) 총장을 만나 경기도-워싱턴대 간 청년 사업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올해도 경기도 청년들을 보낸다"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다녀온 청년들

이 아마존(본사가 시애틀시에 있음), 워싱턴주의 훌륭한 자연체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멘토 역할을 해준 학생들이 친절함과 지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나 마리 카우스 총장은 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여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밖에서 배우는 것이 강의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는 올림피아에 있는 워싱턴주 청사 견학과 가능하다면 의원 초청 특강도 추진해 보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워싱턴대학은 지난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의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구 경험을 제공해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계층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년 200명이 오는 7월에서 8월까지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약 4주간 연수를 했다. 워싱턴대학에서도 39명이 연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워싱턴대를 포함해 미국·호주 등 총 9개 대학에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대와 청년, AI, 반도체, 정경에너지연구소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창 기자

수봉공원·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 논의

인천시-시의회, 현장소통 강화 '우리동네 시청'... 미추홀구 홍보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원도심 주요 현안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을 첫 방문지로 10일 미추홀구를 찾았다. 이날 방문은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안전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미추홀구 지역구 의원(이봉락·김재동·김종배·김대영)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민선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날 첫 방문지로 용현 1·4동 수봉공원 하단부 고도 제한 현장을 살폈다.

이봉락 시의회 의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높이가 기준을 세 차례 완화했지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과도한 고도제한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황 부시장은 "증장지역 시야를 가지고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요청은 지난 3월 제293회 임시회 에서 김종배(미추홀구) 시의원이 5분 발언에도 언급한 바 있다.

이어서 방문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

퍼스에서 김재동 시의원은 "지난 2009년 인천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이후 미추홀구 제물포캠퍼스는 장기간 방치돼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되고 우범 지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시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개발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방안 마련은 지난 1월 유정복 인천시장 미추홀구 연두 방문 때에도 건의가 나왔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황효진 부시장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밝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듣고 해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선근 기자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가수 이외에 누락된 분묘(합장)중 묘지 행태가 없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와 분공고에 누락된 장기 소재지 내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포함)에 대해서도 분공고에 값을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744-2번지
 2. 분묘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인력개장(화장), 10년간안치
 5. 안치 장소 : 총북 읍성리 생곡면 오소리 445번길 77, 무지개추모원(10년간안치)
 6. 개장 방법: 유언분묘: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이장 인의개장
 7. 공고 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2024년 7월 1일까지(3개월간)
 8. 연락처 : 조복규 (032-933-4422)
 9.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96번길 48
- *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구자간의 연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24년 5월 13일

공고인 : 조복규